

■ 지방선거 핫코너

지역 국회의원들 “야권 연대 위한 호남 무공천 반대”

박주선·김동철·김효석 등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8일 “야권연대를 이유로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를 아예 공천하지 말자는 것은, 당원들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야권연대는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과의 타협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야권연대는 야 4당이 각각의 후보를 따로 공천해서는 승리가 어렵거나 불투명한 지역에 국한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야권연대를 위한 호남지역 무공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현재의 야권연대 진행 방식은 민주당의 당원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당 지도부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연합공천 한다며 호남서 ‘反민주당 연대’ 갈등

‘5+4’ 야권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에서의 연합공천을 놓고 야당 사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도 야권연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참여당 등은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기에 원칙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당 핵심관계자는 18일 “호남에서의 연합공천은 민주당의 일당독점 구도를 강화하고 ‘야당끼리 나눠 먹는다’는 비판만 부를 것”이라며 “이보다 민주당을 뺀 나머지 후보끼리 연대하는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연대 협상에서 한발 뺀 진보신당도 호남에서 반(反) 민주당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지방선거의 명제인 정권심판을 위해 야권이 반MB연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뜻만 쫓겠다는 발상”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동당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민노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호남에서 기초단체장 몇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참여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당 등의 이 같은 무원칙한 주장은 연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시장 후보, 복구 청사진 밝혀라”

이형석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 후보는 18일 광주시장을 준비중인 후보자들에게 “북구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생각과 정책방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복구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각 후보자별로 복구발전의 청사진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3대 현안인 ▲31사단 조기이전 추진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계획 ▲KTX광주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의견과 각 후보자별 정책공약 혹은 공동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형근 “재래시장, 문화공간으로 전환을”

오형근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 후보는 18일 “말바우 시장 등 재래시장을 지역문화와 전통, 삶이 숨 쉬는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말바우 시장을 방문, “대형 할인점 개설에 밀려 재래시장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서 “재래시장을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량해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남구 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정재훈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남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해야 풀어야 하는 어려운 사회여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 “남구 보육시설 1천153곳 중 시간간장형 보육시설(오후 7시30분부터 자정)이 73곳 밖에 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특히 남구는 구립 어린이집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순차적 계획을 세워 시간간장형 보육시설을 16개 동별로 우선 1개씩 신설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호준 “향교 주변 정비·시설 확충을”

이호준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광주향교 문화유산을 전승보존 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비와 시설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남구 사직동 광주향교에서 거행된 공기(孔紀) 2561년 춘계 석전대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종합계획에 ‘유교문화권 보존사업’으로 일부 반영은 되어 있지만, 정비내용과 추진 속도가 미흡해 남구청장은 광주시의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건의해 사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평오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

남평오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 후보는 오는 20일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송미빌딩 6층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나선다.



남 후보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소통의 리더십과 창조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책임자치, 책임행정, 책임복지의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개소식에서 지지자 등과 함께 ‘따뜻하고 살맛나는 북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호소와 함께 ‘2010 행복 북구’를 선언할 예정이다.

최동원 나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최동원 에이비에스 농어민방송사 사장이 18일 나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최 예비후보는 “농민의 소득 증대 없이는 나주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주 농업 경제의 회생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지상과제를 이뤄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RPC 통합, 쌀 유통회사 설립 ▲농가 복합영농지원 ▲지역농협 농산물 유통 활성화 ▲농산물 마케팅 강화 ▲한우 명품화 등 축산업 육성 ▲나주배 최고급 브랜드 구축 등을 내세웠다.

민주 광주 구청장후보 14명 공모

민주당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 결과, 동구에서 3명, 서구 2명, 북구 4명, 광산구 5명 등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지역으로 중앙당에서 후보자 공모를 한 결과, 모두 9명이 공모에 응했으며 북구는 아직 경선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18일 오후 6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광주시당 공심위는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결과를 토대로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보자로 확정하게 된다. ▲동구=유태명, 임홍채, 조영복 ▲서구=김선옥, 전주연 ▲북구=남평오, 송광운, 오형근, 이형석 ▲광산구=김종운, 민형배, 유재신, 이정남, 이정일.

정찬중 “도교육감 선거 불출마”

정찬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후보의 난립으로 전남교육의 사본오열이 우려된다”면서 “나와 가장 비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신태화 후보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대화총장)들에게 전남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신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면서 “출마를 포기하지만,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원도 입지자들 “오늘은 눈도장 찍는날”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현안 간담회 및 6·2 지선 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정세균 대표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뺏긴 외규장각 문화재 또 있다

목록 1점·대리석판 3개, 파리국립박물관서 소장 확인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된 우리나라 외규장각 문화유산이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BNF)에 추가로 소장돼 있음을 보여주는 목록이 처음 공개됐다.



이 목록은 1867년 당시 BNF의 전신인 파리국립도서관이 작성해 프랑스 극동함대 소속 피에르-귀스타브 로즈 제독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표지와 21쪽의 필사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서관 소장품 중이던 한국의 시민단체나 반환 협상을 하고 있는 외교부는 이 목록을 근거로 프랑스 측에 실제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대리석판 3개와 목록 1점도 이 목록에 기재돼 있으므로 이들 문화유산도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대리석판 3개와 목록 1점이 BNF에 있다면 국립도서관의 동전·메달·관화부(Departement des monnaies, des medailles et des Estampes)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한·일, 핵무기 즉시 만들수 있는 국가”

美 합동군사령부 보고서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장치(nuclear devices)를 빠른 시간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지닌 국가”라고 규정했다.

합동군사령부는 지난달 18일 펴낸 ‘2010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의 안보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을 이같이 평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기술과 핵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 기술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안보에 계속되는 위협은 핵무기의 확산”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장치 실험을 시도했고, (핵)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인접 국가 및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협상력)를 높이기 위해 초기단계인 핵능력을 무기화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angsoo' (山水土風) featuring a list of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traditional Korean food and cultural items.

Advertisement for 'Sangsoo' (山水土風) featuring a list of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traditional Korean food and cultural items.